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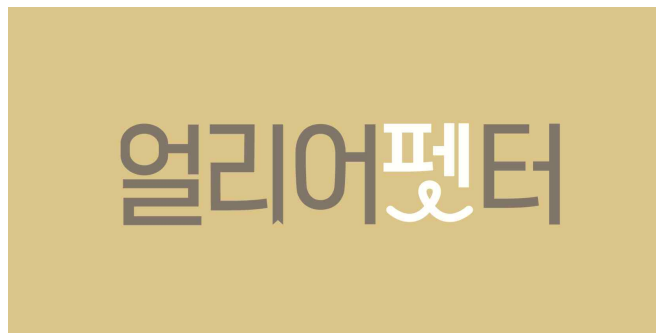
지스트 출신 스타트업, 인공지능으로 애견 옷 사이즈 골라주는 '얼리어펫터' 개발

- 홍주영 학생 등 대학생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시고르자브종' 반려견 의류 쇼핑몰 '얼리어펫터' 베타 서비스 시작
- 2021 지스트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대상 수상



▲ 스타트업 '시고르자브종'의 홍주영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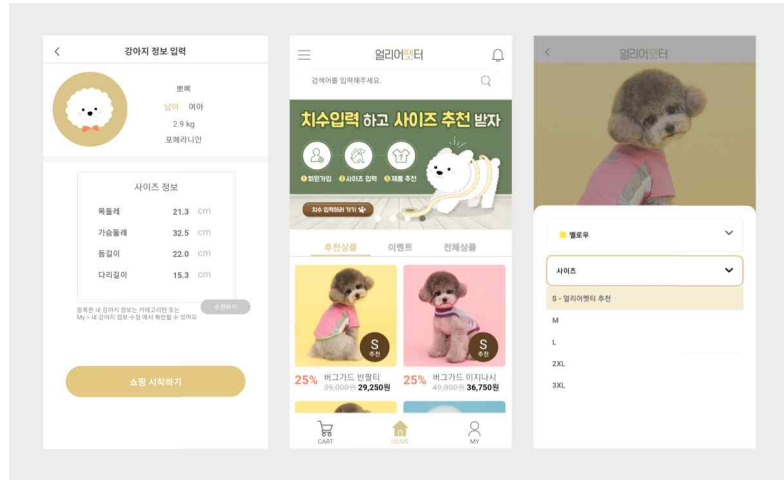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와 포스텍 대학생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시고르자브종'(대표 홍주영, 지스트 전기전자컴퓨터공학 18학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반려동물 의류 사이즈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반려견 의류 플랫폼인 '얼리어펫터'를 개발했다.



▲ '얼리어펫터'가 2021년 12월 베타 서비스를 런칭하였다.

'얼리어펫터'는 반응형 웹으로 출시되어 링크를 통해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링크: <https://alpet.co.kr>)

홍주영 대표는 인터넷몰에서 반려견 의류를 구입할 때 반려견에 꼭 맞는 사이즈 선택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토대로 이를 컴퓨터비전 기술을 적용해서 해결해보자는 아이디어를 통해 '얼리어펫터'를 탄생시켰다.



▲ '얼리어펫터'의 주요 화면

'시고르자브종' 팀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과 강아지옷 판매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시장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얼리어펫터'는 개인화·맞춤화된 사이즈 추천 기능을 담고 있어 사용자가 등록한 반려견 사이즈 정보를 바탕으로 추천 상품을 제공하고, 각 상품별로 반려견에게 잘 맞는 옷 사이즈를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베타테스트 이후 2022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얼리어펫터' 어플리케이션에는 사진 기반 사이즈 분석 AI와 견주들을 위한 커뮤니티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컴퓨터비전 기술을 결합하여 강아지 사진을 업로드하면 사이즈를 자동으로 분석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상품별로 구매하기에 적합한 사이즈를 계산하여 추천해준다.

홍주영 대표는 "베타 테스트를 통해 견주분들로부터 실제 사용자 의견을 받고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얼리어펫터가 지스트 내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타트업 '시고르자브종'은 2021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I-Corps) 및 지스트 GSS 사업 등에 선정되었으며, 2021 5대 과기특성화대학 공동 창업경진대회(X-IST) 우수상, 2021 지스트 창업 아이디어경진대회 대상, 2021 GIST CEO Forum 장려상 등을 수상하였다.